朝鮮日報

社說

保障條約과 世界의平和

一

지난十四日에佛外相부리안氏가倫敦에赴하야 英外相첸바렌氏와會見한 結果保障條約은理論時代를脫하야實行期에드러가게되엿다 그런데이번會商에依하야 決定된重要問題는둘이잇섯스니 其一은保障條約에關한獨逸의通牒에對하야 佛國에서送致한回答案의用語等에論及한것이오 其二는保障條約의確定的形式을討議한것이다 이두問題中第一點은大體上으로何等의隔意가無하 圓滿한討議를遂하엿고 第二點에重要視되는 論點으로써多少의波瀾을보게된것을 벌사이유條約第四十四條에準據하야 佛國이獨逸에對한單獨行動을取할의可否에關하야討議한結果佛國領土侵入과同國境의軍隊集中等의不法行動이잇슬때에限하야 單獨行動을容認하게되얏스며 그와同時에 英國은獨逸이佛國에對하야 不法의攻擊을加하거나 又는佛國이獨逸에對하야 不法의侵畧을行하거나何者를勿論하고 宣戰을布告하야 制裁할수잇도록말하자면公明正大를 本意로한것이라한다 이와가티된英佛協定은 이미英閣議에서通過되고 佛國에서도承認될것이事實이니 今後는英佛獨의會商을지내여 於是乎安全保障問題는解決을告하게될것이다

二

勿論安全保障條約은 제네바議定書에比하야 그範圍가狹少하다 現在英 佛 白 獨의四國이參加하엿슬뿐이오 伊太利가加擔한다하드래도 五國間의平和를保障함에 不過한者이나 그內容에잇서 從來의同盟條約이나 제네바議定書보다도이어多少의進步的色彩를띄이게된點은第三國인獨逸을 敵國으로하야對抗하라는데 그本意가잇지아니하고四國相互間에·國境의安全을保障한다함에잇는것이라할것이다 그리고 제네바議定書가말하자면非現實的이오 理想的임에反하야 이것은實際的이오또現實的이라할수잇다 그럼으로 이번安全保障案의成立으로말미아마 亂麻와가티 不安하든歐洲에 少康狀態가恢復될것을 企待할수 잇슬것이오 一步를進하야는 世界의國際政局上一大安定이 竊々될것이다 그러나 여긔에서 看過할수업는것은 英 佛 白等諸國이獨逸의侵畧이라는先入觀念에서버서나지못한點이라할것이다

三

現下獨逸의國情을살피건대 歐洲列國中에서도 가장軍備가完全한佛國에對하야 復讐的侵略을敢行할만큼 國力이恢復되랴면 그前途가實로遼遠하다할것이오 假令恢復이意外에速히進步된다하드래도 벌사이유條約은 獨逸로하야금 軍備를無制限히擴張하야서 그侵畧的理想을遂하도록 放任하지아니할것이 또한嚴然한事實일것이니지금 聯合國側에서 後日獨逸의侵畧을豫想하고 부즐업시條約의文句와用語에齷齪하는것은그들의 杞憂에不過한바이다 그러고 世界人類가 일즉戰爭의慘禍에對한 沈痛한經驗을備嘗한지라事허特權階級을爲한侵畧的戰爭의慘禍를反覆함에는터어도自覺한民衆의意思가許諾지아는것이다 쑨만아니라 獨逸國民도언제나 侵畧思想의奴隸로서無益한復讐戰을甘作하리라고하는것은 弄토民族의將來에一種의侮辱을加하는邪推에不過한것일뿐더러 一步를進하야는流動하는世界大勢와 變遷되는社會進化의法則을 一種化石觀하는것이라할수잇다 그럼으로吾人으로써하면 今番安全保障案에나타난侵畧戰의豫想은侵略과殺伐에다永遠性을賦與하는特權階級政治家輩의錯誤된觀念이라아니할수업다

四

要컨대 오래동안歐洲政界에懸案이되야잇든 安全保障問題가 多少進步된相互主義의形式으로서 解決을告하게된것은世界平和를爲하야 吾人도贊意를表하기에躊躇치안는者이어니와世界의永遠한 平和가決코이러한侵畧保障의 條約에依하야實現되지못할것이 明白한事理임으로信하는 吾人은侵畧…하고 經濟生活의相互…提로하는 國際的關係…久의平和를더욱切切히…마지아니하게된다

羅國의猶太人排斥
市中에서被打頻頻

(나우엔十四日發) 羅也納情報에依하면羅馬尼에서猶…運動이再起되야急激히旺盛하여가는바 만흔猶太人은…最近은市中에서頻頻히毆打를當하게되엿슴으로政府에서는地方에戒嚴令을發布할는지도모르겟다더라

上海事件交涉과
北京外交團의不滿
交涉의延拖、錯綜은責任이各自國政府에잇다

(北京十四日發) 上海事件交涉이何時開始될는지도모르…에外交團側에도各種不平不滿이잇는바某國外交官은此에…하되「司法調査는列國의意見이一致하드래도中國이反對…假令調査를開始한다하드래도效果의有無는疑問이오各…直接나선것은事件을益益紛糾식힌感이잇다最初대로關係…으로하여금直接中國側과交涉식혓드면今日外지延拖되지…事態도그外지錯雜되지아니하엿스리라是憚업시말하면…事態를不利한處地에陷入케한責任은各本國政府에잇다…

亞細亞勞働會議
各方面에交涉開始
成立期는遲延하야도明秋頃
◇東洋勞働界의革新

(東京電) 今年의第七回國際勞働會議는日本及東洋諸國의勞働問題가特히議論의中心이되여各國代表의注目을끌러드되여其總會에서는特히東洋의勞働狀態를調査할것을決議한터인바또此와는別個로今回會議中日本勞働代表鈴木文治氏는出席中인印度勞働代表「쏘ㅣ지」氏와暗密히會合을거듭한結果國際勞働會議와는別로亞細亞勞働會議를計劃하야드되여兩氏間에其協定이成立되엿는故로鈴木文治氏가會議成立에關한周旋者라하야一切를委任받엇는故로鈴木氏는今回歸國하는同時에各方面에交涉을開始하야玆에亞細亞勞働會議의成立에着手되엿스며參加國은日本、…

樺太利權
第一回委員會

(莫斯科十五日發) …後七時로부터利權委員…樺太의石炭及石油의…日露代表의第一回會…

漢江治水
根本施設問題로

條約局長後任
長岡氏로內定

(東京電) 外務省…任은長岡公使로內定…中에發表되리라더라

演習回數整理
陸軍省의決定

(東京電) 陸軍…理의結果各種演習…

上海怪疾
日復蔓延
每日患者百餘名

羅州電氣施設
方今工事中

外米免稅延期로
市價調節에無影響

代用食輸移入과
關稅撤廢問題

水害救濟資金과
殖銀櫻井理事談

韓、漢銀行等의
最近預金狀況
案外로好成績

淸州物價現況

元山仲介賣買
八月上旬分

巡回素人劇에
同情金遝至

救濟音樂盛況

從事員養成始業

三湖驛七月中業積

高文靑年總會

七月中船舶出入

普校工事入札

金浦區域西救金募集

人事消息

日粉埋立着手期

商況

後場奔落
四十圓臺割
波瀾重疊

期米

株式

後場小硬

閑散小締

暴風無響

某硬氣觀

朝紡續落

主要株取組

取組代引算定日步

出來高

大阪長期株式

米豆餘話

正米益益低落

小麥續落
十八圓臺出現乎

東京拂下成績

綿絲

橫濱生絲

京城綿絲布

海外經濟

金融

大阪短期步調

가뎡부인

어린아이이단속 (一)

젓먹이는시긔로부터주의 정하게하는것이뎨일필요

니(齒)는사람의건강상막대한영향을 미치게하나니 아이들이어려슬때로부터 어머니되는이는반드시 주의하여야 할것이올시다 어린아기나흔후포유긔(乳哺期)에도니는잇슴니다 그러나그니는악골(顎骨)내부에뭇처잇슴으로우리의

눈에보히 지는안슴니다 그것이 점점자라서 나흔지칠팔개월이되면 아래턱압니가 가장먼저나오고 차차로두개 또는세개또는네개식나기시작하야생후이개년에이르러비로소스무개의니가나서완전한유치(乳齒)의렬을짓는고로 아기의 탄생할순간으로부터유아(乳兒)의구강을정결이하여야 할것입니다 가령아기에게 젓을먹이고 그대로내여버려두면젓찌기가세균(細菌)의발생을도아주고 그번식을 용이케하야여러가지강내염(腔內炎)을이르킴니다 하는터이즉 십분주의하여야 합니다 유치가나오기시작하야완성될그사이에

아기들은 다소간니몸이압흐고 가려웁고하야 전보다비교덕 보채이는것이올시다 만은튼튼한아기는 아모 별다른장해가업시 량친의아지못하는 가온데어느듯 그시긔를 경과합니다 유치가나올때의증후(症候)로말하면 어린아기가 자조침을흘리며어머니 젓이나 작란감이나손가락을물고 십허하는고로 잘정신차려 보는사람은 곳알수가잇슴니다 몸이약하고 신경질인어린아기와 영양불량의 유아는잇다금 열이생기고 식욕이감퇴하며 혹은젓을게우고 설사를하고함니다생후

칠팔개월 즉니가나오기시작할시긔가 되면 젓이만히흐르며 점점자라는데로 유아는유즙(乳汁)중에잇는염류(鹽類)만으로는 매우 부족한고로이것을채워주기 위하야 고기국을쓰려서그말국만 마시게함이 필요합니다 전분질(澱粉質)가온데 데일소화하기쉬운것은중탕(重湯)이니이것을고기국물에타서주는것도조흠니다그외에실과즙ㅡ례를 들어말하자면 능금·배등의씸질을 벗기고채판에 슬어서그즙을내여 먹일것이요 과자로는 극히단박한것을 택하야줄것입니다생후

만일개년 이되면유아는어머니의젓으로만은오히려부족함으로 우유나그밧게 다른것으로 보충하여줄것이외다 그리고유즙중에 부족한 뎐분을채우기위하야 야채를사용함이 매우조흔니 닭고연한무로 즙을내여먹이는것도 필요하고 파와고기를너코 국을쓰려서 그물을먹이는것도조흠니다(계속)

童話

젊은왕자의검

비도녯날고려적엇던시골촌구석에양금을잘뜻는어엽분처녀가잇섯슴니다 얼굴은진실로아츰이슬을먹음고피여나오는함박쏫가티아름다웁고성질은비닭이가티착하고온순합니다 그리고그의목소리는쇠방울을흔드는듯뚜렷하엿슴니다 그동리사람들은 누구하나빼여노치아니하고모다입에침이마르도록 그처녀를 칭찬하엿슴니다 아이들은 마티그처녀를자긔어머니와가티정답게 따르며그의 몸이 어데서 나타나는것을보면소리를지르며뛰여옴니다 그처녀의 일홈은 입분이니 아이들도모다그를보고

『입분이입분이』

하고부르며 치마자락에 매여달림니다 그러나 입분이의신상은 매우가련한것이올시다엇던개천가에 내여버린것을 인정잇는엇던사람이 주어다길럿슴으로 성도모르고부모도모르는가이업기그지업는 아이올시다 입분이는 아모에게도음악을 배혼일이 업스나원래날때부터 세상에 드문련재를가젓슴니다 언제던지 입분이는푸른잔듸밧헤안저서동리집 아이들을 모하노코 양금뜻기와 노래하기로 소일을 삼는것이올시다 녯날병뎡들의 노래와하늘의 선녀노래 산과바다와수풀과 새들의노래를 지여불르며 아이들로더부러 즐겁게 지내엿슴니다 그러케 놀다 엇던날입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푸른잔듸밧헤안저서노래를부르고잇는데저ㅡ편수풀속으로부터말굽소리가 들리더니 졂은왕자와 화려한한때도가나타낫슴니다 왕자는눈부신얼굴에빙그레히우스며

「나도좀듯자」

하고 입분이의얼굴을 바라보앗슴니다 입분이는 붓그러워서 고개를 잠간숙이고 얼굴을붉히며 우섯슴니다 아이들은 아모말도 아니하고 풀밧헤누어 뒹굴고잇슴을보고왕자는얼는말우에서나려그아이들과함께풀밧헤누어서 뒹굴며

『나도어린아이들과 똑가튼사람이나붓그러워할것업시노래를불러라』(계속)

◇신랑신부◇

▲박준병(朴駿秉)(二二)군과리창순(李昌順)(一八)양은십구일오전팔시 시내봉래뎡 련주교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동경고공재학중(高工在學中)인김종량(金宗亮)(二四)군과경성배화녀학교출신(培花女學校出身)인 조계은(趙啓恩)(一八)량의 결혼식을황해도신천읍내례배당에서내이십일하오세시에 거행 한다고

어린이세상

해와바람

옛날옛날고려적에하눌우에는해와바람둘이살엇섯는데 해는사람이조와서 언제든지 싱글싱글웃기를잘하고 바람은성미가급하여서 골만잘 내이고 싸홈만 조와하엿슴니다 그래서 산에 잇는 나무들과 새 들까지 라도 바람몹시부는날은 실혀하고 해가잘 나오는날은 조와하엿슴니다 어느날 사람하나가 길을거러가는 것을 보고 해와 바람 둘이 서로의론하기를 『누가 저길가는 사람의입은옷을 벗도록할 재조가잇나 내기를하자』하고 옷벗기기내기를 시작하엿슴니다 처음에 바람은 우악스러운힘으로 옷을벗기랴고 바람을 몹시 부럿더니 그사람은쌈짝놀래여 옷이찌저지고 바람에 날러갈가 보아서 더웅숭그리고 옷을 잔뜩붓잡앗슴니다 그래도 바람은더 몹시 불으니까 그사람은 처워저서옷을더 꼭염이고 암만하여도 노치아니하엿슴니다 그리하야 바람은 그사람의 옷을벗기지못하엿는데 다음에해는 따뜻한 얼골로 내려 쪼엿슴니다 그사람은 그제야 마음을 노코 거러가다가 해가더웁 내려쪼여 땀이흐르고 퍽더우니까 나종에옷을 버서 노앗슴니다 이리하야 바람이 못벗긴 그사람의옷을해가벗겻는데 내기를이긴해는 또한번싱글싱글우섯슴니다

金剛禮讚 (三)

白雲香徒

正陽寺

◇表訓寺에는비로부터特殊한備品이더러잇슴니다 다른데와가티佛像을門外로向하야바로뫼시지아니하고 유독이절에서는東으로모라부첫이 또한그一端입니다 여긔關하야중들은여러가지奇怪한說明을부치나 대개는臆測이아니면附會뿐입니다

◇대저佛敎가金剛山을攝化한根本點은法起菩薩이니金剛山의모든佛敎的名相은統히이것으로써울어나왓슴니다 그런데法起는무슨因緣으로쓸려온것이냐하면古神道의『붉』(혹『벌그』)으로더부러音相似한外닭에말미암앗슴니다 金剛山이古神道時節에는全體로도『붉』山이엇지마는同時에그主要한峰巒이또한『붉』系統의種種派生名을가젓섯슴니다 『붉』의一訛形인『벌그』혹『벌』은첫재音似關係로華嚴經의法起와結托하야古神道의『붉』峰이佛敎에서는法起峰(其他種種)이되엇슴니다

◇法起峰이란것은金剛山에잇는여러神岳中에서도무슨特殊한地位를가젓섯는데그에對한禮記에는아마시방表訓寺터에서擧行하얏든모양입니다그런데아모리新敎가舊信仰을吞倂하야도오랜觀念과儀式은어떠한形式으로든지代興者의속에轉生하는것이通例입니다시방表訓寺에서보는바佛敎에는아모依據가업는東邊設像의儀文도실상太陽을神體로하야東方을尊尙하는古神道의一主要點이본대그代表的一靈場이든關係로特히表訓寺에모르는中傳承되여나려옴일것입니다

◇表訓寺에는附近에여러末寺를가젓스니 敬順王妃의開刱이라는頓道庵과 新羅의古塔으로들린神林庵이다有名한곳이어니와 아모데보담도들어난곳은正陽寺입니다 그러나正陽寺는正陽寺그것으로들어난것보담 歇惺樓잇는곳이라하야더욱들어나게된것입니다

◇表訓寺의뒤들로하야 金剛內山에서는희한하다할홍바다의쌀덕잣바진羊腸峻坂으로 발에채는木賊덤불을헤치면서한五里나올라가면신통하게一弓平地가생기고작으나마란란한여러堂宇가소담스럽게모여잇는것이正陽寺입니다 正陽은山의正脈이라하야일커름이라합니다 高麗太祖가여긔올라왓슬제法起菩薩이現身하야石上에放光을한고로太祖가臣僚를다리고頂禮한後인하야이절을이룩하니 그래서後岡을放光臺라하고前嶺을拜岾이라하게되엿다는傳說이輿地勝覽에도긔혓습니다 그러나『放光』이니『拜』(秋江記에는拜岾을髮嶺으로적엇다)니하는것도 실상『붉』又는『붉은』의轉形으로古神道의信仰上遺蹟일따름이오이리궁커리궁은다傳說作家의소리입니다

◇本堂은또한般若殿이라하야法起菩薩의主壁에古印度經百餘幅을소북하게싸핫스며 庭中의藥師殿은들보쓰지아니한六角堂임과壁畵가吳道子의摸寫라하야古來로떠드는것이니 안에는正中에新羅造라는藥師石像을뫼섯슴니다그압헤는新羅末期에屬할듯한二層基壇三層身의石塔과그

小說

웃고십건우서라! (一六)

周相作

七의六

봉선이의 목소리는 순탄하고 화평하얏다 두녀자가 범당압을지나 정동으로넘어가는 나즉한산모통이에 올러설때는 아츰안개에싸인해人빛이 제법자긔비외몸통아리를 얼싸안아 출만치올라왓다 봉선이는 아츰이면남편이 하듯이 무심코 두팔을버리며 호흡운동의 입내를내어숨을내쉬다가 뒤에서련화가

『얘봐라? 재주핀다 너두학교에단엿니?』하며 놀리는바람에쌀쌀웃고 몰아서서 련화의억개를탁치며

『한번다시 해볼께봐요』하고또돌아서서 춤을추듯이 두팔을버리고 열심으로 입을떡떡버려가며 『하ㅡ』『후ㅡ』하고섯다 련화가보는 련화에게는 별다른생각이업겟지만 봉선이게는 모든것이 새로운것갓고 모든것이자긔를 반기는것가티 마음에든든하고 유쾌하얏다

사랑이 자란다는것은 한거름한거름식 인생의길을 압흐로나간다는것이요 인생의길을 나간다는것은 인생의맛을 한칭한칭씩깁고깁게 맛본다는말에 지나지안는것이다 봉선이가 이십평생에 이날아츰가티 행복을느겨본적이 또다시업섯다고 지금도노이고 노이지만 그는곳이생의묘미를비로소 집흔데까지 깨닷기시작하든 날이란말이다 봉선이는이때까지 금박(金箔)으로싸민찬란하고 아릿다운 최영준의고집으로 이런동안을 살아왓다 그러나 지금의최영준은 그금박이 다떠러지고 남뎡어리가튼맨몸퉁이의 최영준이다 그러컨만 도금(鍍金)하얏든 최영준이에게 사랑을밧는것보다 벌거버슨최영준이를 사랑하겟다고한다 여긔에인생의묘미가잇는것이다 세상사람들이것을가르켜갑는다하고의리라한다 그러나최영준이는빗나리하는사람이어든무엇을갑고무엇을바든다는가? 사랑은 갑고 갑는것이아니다간밤에 봉선이는 무어라하얏느냐? 『그영과 그집은 나도 슬데업다!』고하지안헛느냐 금올린남자에게 사랑의표덕으로 영과집을 바닷스니 그사랑을갑흐라거든 위선영과집을 내어줄것이다 그러나 황금옷을버슨온전한사람만을 사랑하라는봉선이에게는 황금옷을입은 최영준이도시들하고 따라서 황금옷입은최영준이가 준재물도 귀하지안헛다 그러면 사랑이란 대관절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리못고대답하지마라 또대답할수도 업스리라 안다는자는 방자한자의말이다 하나님의형상을 못보앗기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하지안느냐 사랑의모양도 그림자도냄새도 빗갈도못보앗기에 귀한것이다 다만사랑하는사람이리 깁히맛보아라 모든곳센힘이 거긔로부터 샘솟아 너자신을살찌게하고 크게자라게하리니 또무슨고락을 계교할여가보랴

아츰해人발이 맑고 가비야운바람에안기어 파릇파릇한 잔듸사닙에 금빗으로 반작일제봉선이의 가슴은 한번더뛰놀앗다 며간드러진 고깔쏫을 한쥼이나뜸뜩이 떠가지고 련화보다뒤떠러커드러와서 밝지는 주인녀편네더러 병을달래 손소꼿을부어씨자노코보니답수룩한것이아담스럽다

有志의發起로 幼稚園期成創立
禮安地方의曙光

慶北安東郡禮安에는아즉外지幼稚園이업슴을一般人士는遺憾으로생각하든바去十四日에有志의發起로禮安靑年會館에서幼稚園期成會創立總會를開하고圓滿히討議한바未久에實現될듯하다하며當選된任員은如左하다더라
執行委員長 申應漢 執行委員 李庸文 姜基泰 申相緖 申世均 朴洪柱 申東均 李鎬允 常務委員 李時敎 申炳武(禮安)

景浦에 婦女夏期講座
友愛靑年會主催로

咸南洪原郡景浦面友愛靑年會에서는同會의主催로去十四日부터同面婦女夏期講座를同面面私立普通學校內에서講師는韓淳鵬氏로二週日間을開催한다더라(洪原)

少年少女雄辯 大盛況을이루어

既報=靑年會主催東亞、朝鮮馬山兩支局後援으로至馬山少年少女雄辯大會는지난十五日下午三時의豫定이엇든바事情에因하야同日下午八時로時間을變更하야俱樂部會館에서開催한바定刻前부터모힌聽衆은立錐의餘地가업시場內場外가滿員으로大盛況을이루엇다는데當選된演士氏名은下와如하다더라
當選演士=一等 呂德鵬 二等 朴根祚 三等 呂相道 四等 朴要淡 五等 金聖晶(馬山)

城北俱樂部
會長制를委員制로

市外東小門外城北里에잇는城北俱樂部에서는去十三日下午八時부터臨時總會를開催하고從來의會長制를委員制로變更하야左와如히任員을改選하고其他事項에對한만흔討議가잇슨後十時에無事閉會하얏다더라
庶務部 徐光勵 高德龍 財務部 朴性根 徐光鎬 智育部 金東瑾 體育部 徐丙泰(崇仁)

留學生招待會
陶山俱樂部主催로

慶北安東郡陶山俱樂部에서는去十三日에當地夏期休學으로歸鄕中인留學生十九人을招待하야本部總幹事李奎鎬氏의熱情이넘치는開會辭로비롯하야主催側李雲鎬李炳鎬氏의感想談과學生側李世寧李源天氏의答辭와來賓李鉉文氏의祝辭가잇슨後다시茶菓席으로옴겨그리든情懷를吐出하고餘興으로各各技藝를자랑한後萬歲三唱으로盛況裡에閉會하엿다더라(禮安)

平康에 市民大會
水道期成問題로 여러가지決議

平康水道期成委員會에서는去十五日午後三時半부터平康面事務所에서市民大會를열고아래와가튼事項을決議한後同六時에閉會하얏다는데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決議事項

一、元來水道經營으로는四個所에公設共用栓을設置하고其他一般에는各各結合申込에依하야私設共用栓을設置하라하얏스나同一한市民同一한負擔을課하고엇던者는架設費가업는公設共用栓을엇던者는架設費를내고私設共用栓을하라는나는市民의不平이잇슴으로既往作定된四個所의公設共用栓外에六個所의私設共用栓架設費大部餘額은全市民이平均分配負擔하되分配方法은戶別等級에依하고私設共用栓의六個所架設個所는委員會에一任하야市街中最適當個所마다할일

二、市民中戶別等級十五等以下에잇는貧困者와月俸生活하는者에게는既任負擔도重한데特別히이번負擔만은全然免除할일

三、戶別等級에依한新負擔金額은아래와가튼比例로
一等五十圓 二等四十圓 三等三十圓 四等二十五圓 五等二十圓 六等十七圓 七等十四圓 八等十二圓 九等十圓 十等八圓 十一等六圓 十二等四圓 十三等三圓 十四等二圓 十五等一圓(平康)

春城學院에同情

元山市外松興里春城學院에서는去十三日午後八時에同學院內에서歌劇會를開催한바觀覽者二三百名에達하얏스며一般의同情金은左와如하다더라
辛致貞 無名氏各五圓 要樂司令部職員一同三圓六十錢 韓璣洙三圓 李道俊 金昌璘 董壽吉各二圓 元山勉勵靑年會少年部 山根 朴景喆 金仁相 盧鐵眞 李永泰 金松鶴 朴榮善 無名氏各一圓(元山)

楊州少年少女雄辯大會盛況
一二等은女子에게

既報=去月十一日에開催하라든第一回全楊州少年少女雄辯大會는大雨로因하야延期에延期를거듭하다가지난十五日午後八時부터楊州公會堂內에開催하얏는데定刻前부터모혀드는聽衆은立錐의餘地가업시場內場外에는大滿員을일우엇스며定刻이되자會長劉秉寬氏의開會辭가잇슨後參加演士十二名은順番을따러熱烈한雄辯으로豫想以外의興味를주엇스며同十一時頃에賞品授與式을마친後無事히閉會하얏다는데入賞者의演題와氏名及等級은아래와갓다더라
一等 迷信의죽엄과正信의삶을 明信學堂 安信道孃(一四)
二等 準備로써幸福外지 少年團 朴運萬君(一六)
三等 우리의할일 白石義塾 韓翼錫君(九)
四等 잘길러주서요 主日學校 車富完孃(一三)
五等 동무들아잘배호자 主日學校 金福順孃(一三)(楊州)

安城 幼稚園設立
後援會組織

安城幼稚園設立準備委員會에서는지난十四日午後四時半에西里禮拜堂內에서朴容儀氏司會下에臨時總會를開하고閔洪植氏의經過報告와李正鎬氏의會計報告가잇슨後議事에드러가保育金問題로議論이一時紛紛하다가決局一圓式밧기로決定하고來九月一日부터開園키로한後同設立準備委員會는解散하고從來會員으로써다시後援會를組織키로하얏다는바該創立總會는來二十九日에開催키로하고同會規則制定委員은左와如히選定하얏다더라
李正鎬 安圭爾 金台榮(安城)

普明同窓討論

咸南甲山郡鎭東面銅店里私立普明學校卒業生同窓會에서는月例로討論又는講演會를開催한다는데去一日午後八時부터母校敎室內에서討論會를恭基田司會로大[illegible]

金堤에童話會

全北金堤靑年會와[illegible]南鮮巡回[illegible]

益山에 衡平靑年創立

全北益山郡裡里에서는去十五日午後一時에益山衡平分社[illegible]

安東에 講演會盛況

[illegible]

山間道路에도差別
地方民은大憤慨

所謂當局의看板政治는말할것도업거니와山間에이르기外지모[illegible]

元山에 勞働靑年會
去十五日에創立

[illegible]

朝天靑年總會

[illegible]

瑞興校의曙光！
不遠에校舍落成

[illegible]二三有志는大大的으로各里及個人의義捐으로總建築費三千三百[illegible]

少年辯士召喚取調

[illegible]

甲山靑年總會

[illegible]懇親會開催로對한宣傳文配付와婦人夜學의演劇組織等을決議後[illegible]의祝辭가有한後本會幹部와來賓諸氏의午餐會를開하야滿場이融融한和樂裡에午後五時에散會하엿다더라(甲山)

馬山印工組合
總會猶豫

[illegible]

男女雄辯盛況

[illegible]五山面에서는同面私立五山育英會後援과五山面主催로去十五日午後七時에男女雄辯大會를信聖學校內에서開하엿는데定刻前부터雲集한聽衆은立錐의餘地가無히滿場이되자[illegible]

英山同窓會總會

慶北英陽郡에서는去十四日午後三時부터當地英陽公立普通學校卒業生으로組織되엿는英山同窓會定期總會가開催되엿는데趙碩基君의司會로會務를進行하는中會金處理에對하야若干의決議가有한後任員을改選한바氏名은如左하다
安璿煥 李承魯 金基周 崔世煥 禹根鎬 權在榮(英陽)

信川學友會總會

信川留學生學友會總會를本邑儆信學校內에서昨十三日午後二時에開催하엿는바會員全部의決議로京城平壤各地에演士를招聘하야講演會를開催하기로決定하엿고同會役員을左와如히選定하고同四時에閉會하엿다더라
會長 白在瑞 副會長 崔春秀 李尙信孃 金赫斗 李然善 李元實孃 金鳳善 裴延植孃 尹國善 李貞淳孃 吳善在 盧錫泰 金仁愛孃(信川)

傳道巡廻講演
淸州基督靑年主催

淸州基督靑年會에서는今年夏期巡廻傳道講演隊를左記三隊로組織하야五日間豫定으로附近各地를巡廻할터이라는데巡講日割은如左하며今年에는經費上問題로因하야道內各地를巡講치못한다더라
第一隊 趙官植 白寅基
第二隊 崔昶楠 韓光鉉
第三隊 金永周 鄭鏞浩 正奎

日割	第一隊	第二隊	第三隊
八月廿四日	米院	多樂	井北
八月廿五日	松湖	鳥致院	塔里
八月廿六日	一	德村	墨坊
八月廿七日	一	新垈	外德
八月三十日	龍岩	一	一

(淸州)

夜學講習所
九月부터開學

平壤蓮花洞基督敎靑年會에서는同會主催로無産貧家의子女들을爲하야同敎會에서經營하는襄城學校內에夜學으로講習所를設置한다는데費用은靑年會에서負擔하고開學期日은來九月一日부터始作한다더라(平壤)

南浦天道地日紀念

鎭南浦碑石里天道敎會에서는지난十四日午後八時부터同敎會內에서同敎地日紀念式을擧行하엿는데當日은同敎少年團의歌劇唱歌演說外에地日紀念特別演劇이잇서拍手喝采裡에大盛況을呈하엿다더라(鎭南浦)

北靑에서도 救濟禁止
機關은解散

北靑郡內에서는靑年聯合會外十餘團體에서水害救濟會를組織하야救濟金을募集코저執行委員會를去八日에開催하얏는데警官이臨場하야收金方法을詰難치말고警察署에오라하야北靑面에서救濟金을募集하나救濟會名으로는寄附金外지말라함으로不得已解散하게되엿다더라(北靑)

동무會音樂
利原에서盛況

咸南利原郡南面遮湖港에咸興勞働동무會에서勞働夜學의經費補充을爲하야組織한智樂舞蹈團가去六日에到着하야當地靑年會少年會後援으로同七日外지兩日間開會하엿는데數千群衆의歡迎裡에大盛況을呈하엿는데同情人士[illegible]

寄醴泉金碩熙君

(投稿欄 十四字五十行以內 姓名明記)

◇噫！五百年間無理한拘束과不合理아래에서눌리여진한숨과피눈물을唯一의벗으로삼든四十萬의우리大衆！이제야겨우그의나갈길을차저가며사람답게살랴고한다正義와人道를밟는者누구냐이에어쳐한눈물을아니흘릴자잇스며피가끌는者누구냐이에同情을表하지안는者잇스랴？

◇醴泉一隅에서井蛙所見으로自己우에는人物이업거니하며爾行을마지아니하는所謂醴泉靑年會會長이라는任命을負하고모든不合理속에서新生活을開拓하랴는金碩熙君이여！너의입으로나온階級打破를平分社二週年紀念式會議의案旨이아닌말로참으로幼稚하고도어리석다

◇白丁을壓迫하는것이何等의罪惡이아니다白丁이라는것이國法을違反한者이다 時代가조하서勅令이나리여差別을撤廢하엿스니衡平運動을할必要가업다든만코工夫잘하면郡守도될수잇다이와가튼祝辭이말로[illegible]의말보다도핑장히沒常識시럽다

◇보라！人生은다同一한人生이요血脈이물며悲哀喜樂도다一致하다 壓迫하매自由를부르짓고爭鬪하매平和를웨치는것이여든엇지하야同一한사람으로誰尊誰卑며何崇何壓하라오죽同一히水平線上에서나갈뿐이아니냐？國法의違反者가白丁이니拘束한들무슨罪惡이잇스랴하엿스니國法이란무엇이그리宏壯한國法이엿드냐？일어나라고애쓰는者를누르며正言者를撲滅식키든그지긋지긋한우리過去의國法을[illegible]自信하는가

◇그렇라고現法이[illegible]것은決斷코아니다 더욱이돈만코工夫잘하면郡守도된다는[illegible]는[illegible] 郡守도된다니그다지郡守가[illegible]되는냐？너의靑年會長은郡守運動의[illegible]로삼는고나無智沒覺한君이여！우리先祖가君의個白丁놈으로써우리말하는國法 그것에違反者이엿섯다

◇然이나思潮는그와가튼時晩한說話는要求하지안는現今이며萬一被罪者인들그子孫우리에게무슨罪가잇스며人誰無過리요改之爲貴라고한것과가티우리로서는正義人道를밟으면그뿐아니냐？衡平運動을侮辱한우리四十萬兄弟의敵인金君아！自省하야速히너의罪를覺하라(夢笑란白丁놈)

洪原市民大會 準備會
治水問題로

咸南洪原地方에今般暴雨로水災被害가不少하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洪原邑市內는鐵道橫線의引水口가極少한所以로被害가더욱甚하엿다는데今般水災는平年보다甚한은아니는데邑內에浸水가極度에達함은但鐵道가遮斷된原因이라하야去十六日午後二時부터洪原에서治水問題로市民大會準備會를開催하고左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
一、大會召集은陰七月一日午前十一時
一、場所 洪原育英女子部
一、事業進行의必要로洪原靑年會後援을要求할것
官廳交涉委員=韓基淳 李永善 韓承敎 洪性龍(洪原)

學友會創立總會

咸南利原邑留學生學友會創立總會는去十四日午前十時頃에利原邑朴承龍氏宅에서朴乾源氏司會下에左記事項을決議하엿는데會長制委員等을거두고會의全責任者로朴乾源氏를選擧하얏다더라
一、蹴球大會加入의件(利原)

成川半島學院 擴張計劃
面民大會를열고 基本金募集

成川郡三德面半島學院은創立된지不過四年이나經濟逼迫과共히維持困難에設立者들의惡戰苦鬪로겨우維持하는形便이던바그有志들이感한바가잇서崔斗柄 朴相洙 折茂員次郎 朴鍾元 元善中諸氏의發起로지난十二日三德面事務所에서面民大會를開催하며가지고半島學院維新會를組織하엿는데滿場一致로左의各案을通過하고今月內로實行하게되엿다더라
一、半島學院을基本金二萬圓으로할事
一、基本金募集圖體은面內資産家들을標準하야義務的으로出金케할事
一、實行委員으로毎里五人으로選定할事(成川)

學生會創立紀念

宣川留學生會에서는去十五日이同會創立五週年紀念日임으로宣川邑內明信園庭에서同日을紀念하기爲하야素人劇과各種音樂講演을하엿는바聽衆이無慮數百에達하야盛況裡에맛치엿다더라(宣川)

個人討論盛況

延安留學生親睦會主催로東亞朝鮮延安兩支局後援下에社會發展은精神이냐物質이냐라는演題로延白個人討論大會를開催한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豫定과如히去十四日下午七時부터延安公立普通學校에서延白個人討論大會가裵彰建君司會下에開하엿는데演士吳基永君은警官으로부터治安妨害라하야中止를當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얏다더라
演士 精神便 金成勳 宋興國 劉在景 方山孫 物質便 趙斗夏 裵榮建 吳基榮 金斗萬(延安)

自由雄辯大會
當分間延期

咸南洪原郡洪原靑年會에서는十五六兩日間開催하려든咸南自由雄辯大會는今般北鮮의水害와及其他의關係로當分間延期하게되엿다는데從此로도多數參加를바란다하며今般雄辯大會에開闢社에서는人乃天二冊과어린이十冊과新女性十冊을寄贈하엿다더라(洪原)

七寶山探勝隊
無事歸還

咸南端川邑內에잇는有志로서組織된明川七寶山探勝隊가지난二日端川을出發하엿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그一行은雨中探險을마치고지난七日에無事히歸還하엿다더라(端川)

國勢調査說明

慶北聞慶郡身北面에서는去十三日午後一時부터面事務所에서國勢調査委員李敏鎬 鄭攜永 申泰運 金敎植 朴勝說等外二十八人을會集하야도로同郡廳姜錫求氏가國勢調査方法에對한說明을하얏더라(尙州)

夏期와運動
順天野球戰은 稠谷軍이優勝

全南順天郡靑年會主催인運動大會는去十四日부터열엇는데光州軍對順天稠谷軍戰에五對一로稠谷軍이優勝하얏다(順天)

南市에열린 西朝鮮庭球會
義州體育軍勝

龍川郡南市에열린西朝鮮庭球大會는雨天으로因하야去十三日午後三時부터十四日午後七時三十分에畢하얏는데義州體育會에서優勝한바決勝戰績은다음과갓다

宣川우리團 義州體育會
決勝戰
×朴正熙 ○崔興道
×洪基龍 ○鄭昌煥
×朴英璹 ○劉志興
×李允成 ○方俊煥

×鄭仁珍 朴永贊 不戰 金弼鑑 文成福(龍川)

金堤에열린 南鮮蹴球大會
優勝은金靑軍
熱狂으로場內人山人海

全北金堤靑年會의主催와東亞、朝鮮兩支局의後援으로第四回南朝鮮蹴球大會는十五日午後一時부터始作되엿는데數三千의觀衆은날여또이는暴陽도不拘하고觀技에白熱한選手와가티緊張하얏는데最後의優勝은同七時十分에金堤靑年會에歸하야優勝旗授與式을맛치엿는데그戰績은如左하다더라
第二回豫選戰
○成悅武勇對金堤勇進×
×裡里七月對金堤靑年○
決勝戰
×成悅武勇對金堤靑年○(金堤)

關東庭球經過
審判問題로歐谷棄權 文友軍이得勝

江原庫底港庫底靑年會主催와東亞朝鮮兩支局의後援으로第二回關東庭球大會는十一日午後三時부터通明學校第一코트에서擧行케되엿는데參加한九團體의決勝戰인歐谷對文友軍의決勝戰이進行中主審의[illegible]으로文友軍이[illegible](通川)

湖南少年蹴球
來廿六七兩日間 金堤에서開催

全北金堤郡芙蓉白鷗團에서는少年體育의健全과公共의精神을涵養하기爲하야來二十六七兩日間芙蓉公普校코트에서第一回湖南蹴球大會를開催한다는데申請場所는芙蓉驛前金鍾泰方이오參加金은二圓이며各團代表會는廿五日午後九時부터열터이다(金堤)

◇延安水災救濟義捐

黃海道延白郡延安面에서는今番水災로因한全鮮罹災同胞를爲하야有志諸氏의發起로義捐金四百九十五圓五十錢을募集하야郡廳을經由하야全鮮水害救濟會로보내엿다더라(延安)

◇訂正 本報八月十四日付第一千八百號朝刊寸鐵欄黃州記事의事實員朴某는李某의誤植이기玆에訂正함

◇寸鐵◇

【海州】十五日午後八時頃東亞醫院압골목을지나가든靑春男女對話에曰 女『엇저녁에는웨안오셧서요 퍽기다렷지요』男『뜻밧게일이생겨서그리되엿스니容恕하시요』女子는一見에散賣가릿고男子는夏期講習에온某公普先生님가릿다 晝夜講習에奔忙하겟든걸

【端川】日人郡屬田○某의妻는愛犬이더러復讐로朝鮮婦人을市場판에서죽어라고亂打하엿다나！그래개게부른사람은사람도몰라본다말인가이것도大和族의風俗인지

【通川】耶蘇敎信者로봄시도自由를伸長하는金東○金秉○兩者는某氏에게問題인通明學校事件으로片紙오는것을配達夫더러傳치말라고하엿스나듯지아니함으로所長에게外지配達中止를식혀달라고하다가昌皮를當하얏다나『하나님이시여 片紙를中止식혀주시압소서아멘』하니만못하다